

[로스쿨 합격기]

##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 고슬지

-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졸업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0기



## I.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로스쿨’이라고 하겠습니다) 제10기 고슬지입니다. 우선 저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타 원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합격수기 작성의 기회를 주신 『考試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만 환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100가지의 비만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논리가 로스쿨 입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개인마다 각기 다른 정량 및 정성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의 합격 또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

의 합격수기를 합격을 위한 방법론으로 삼아 개인의 정량 및 정성요소를 비교하기보다는, 입시를 위한 마음가짐을 재정비하는 용도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II. 정량평가

로스쿨 입시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객관적인 자기분석이었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합격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제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로스쿨 입시에 있어서 제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분류하고, 더 집중해야 할 평가 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 1. 학 점(GPA)

로스쿨 입시에서 1차적인 정량평가요소는

① 학점(GPA), ② 법학적성시험, ③ 공인영어 성적입니다. 졸업한 저에게 있어서 대학교 학점(GPA)은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3가지 정량평가요소 중 한 가지가 확정된 상황이었고, 그 사실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의 학점은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뒤쳐지는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다’고 안심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합격수기를 읽고 있는 독자가 재학생이라면 학점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학점관리는 객관적인 지표(예, 4.0/4.5)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관적인 지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평가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수험생이 같은 학점을 받았다면, 어떤 과목을 수강하였고, 그 과목에서 어떤 학점을 받았는지를 유심히 볼 것입니다. 따라서 비법학사의 경우 법과 관련된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비법학사이나, 학부 시절에 법학개론과 법과 관련된 교양수업을 수강하였던 것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도 십분 활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강이 로스쿨 진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법학에 대한 개인의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임은 틀림없습니다.

합격수기를 읽고 있는 독자가 저와 같은 졸업생이라면 멘탈 재정비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점(GPA)이 입시에서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학점만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학점을 바꿀 수 없다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기타 평가요소인 ‘법학적성시험’과 ‘공인영어성적’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 2. 공인영어성적(TOEIC)

1년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법학적성시험과 달리, 공인영어시험은 매달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매번 시험의 난이도와 수험생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인영어시험은 입학원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계속 응시하기를 추천합니다.

제게 있어서 공인영어성적은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취업에 있어서도 공인영어성적은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였기 때문에 취업준비를 하면서 공인영어성적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일정 수준의 성적을 만들기에 상대적으로 수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응시의 기회가 잦고 그 난이도와 수험생의 수준이 매번 달라지므로, 법학적성시험 3개월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생활과 로스쿨 입시를 병행하던 제게는 공인영어시험을 위한 공부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히 시험에 응시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학부 시절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학기 2개 이상의 원어발표 및 토론수업을 수강하였으며 원어민과 함께하는 동아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평소 영어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듣기와 장문독해에 대한 공부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이후 취업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문법 및 어휘는 따로 시간을 내어 매일 일정량을 정해 공부했습니다. 1-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TOEIC에 집중하였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인영어성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평소에 영어활용도를 높이면 시험성적의 향상은 단기

적인 공부가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최단기간 내에 목표한 공인영어성적에 도달하게 되면 기타 평가요소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입시 4개월 전 적정 수준의 성적을 취득하였고, 이후부터는 법학 적성시험 준비에 몰두하였습니다.

### 3. 법학적성시험(LEET)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라고 하겠습니다.)은 명실상부 로스쿨 입시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점이나 공인영어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험생에게도 역전의 가능성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3가지 정량평가요소 중에 LEET에 가장 집중하며 역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결심했을 때, 수험생 사이에서 흔히 “LEET는 공부해도 오르지 않는다.”는 소문이 정설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법학'적성'시험이기 때문에 적성을 하루 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한 소문으로 인해 어떤 수험생은 안주하기도 하고, 어떤 수험생은 좌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눈에 쉽게 보이지 않을 뿐, 이 시험이야말로 노력에 비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적성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노력을 통해 법학'적성'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LEET를 공부해도 오르지 않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시험이 대표적인 계단식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량에 비례해서 점진적으로 성적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공부량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지 않으면 투입한 노력에 대비했을 때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성적 향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LEET를 공부해도 오르지 않는 시험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LEET 준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매일 일정량의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년 12월부터 LEET 공부를 시작하여 약 8개월 간 LEET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처음 LEET 준비에 돌입하기 전, 저는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아무런 사전공부 없이 시간을 재고 먼저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이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리논증이 취약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퇴근 후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서 기초적인 논리학을 학습하였고, 주말에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감을 익혔습니다. 직장생활과 LEET공부를 병행했기 때문에 타 수험생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와 다른 점이 없어서 밑바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LEET시험을 앞둔 시점부터 조금씩 모의고사 성적이 향상됨을 느꼈습니다. 이후에 LEET를 치고 시험장을 나오면서는 ‘일찍 시작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LEET는 결코 공부해도 오르지 않는 시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였다면 가능한 한 빨리 LEET공부를 시작하기를 당부드립니다.

### Ⅲ. 정성평가

대부분의 수험생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정량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입시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성평가요소를 준비하는 것은 정량평가요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틀을 정제하고 다듬는 역할을 합니다. 정성평가요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에 이를 소홀히 한다면, 열심히 반복하고 구운 케이크시트에 생크림도 바르지 않은 채 이를 쇼케이스에 진열하는 꼴이 될 수 있음을 염두하기를 바랍니다.

#### 1. 자기소개서

저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이 자기소개서에서 강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진행한 프로젝트 등의 풍부한 경험들이 녹아들면서 로스쿨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지금까지 로스쿨 진학을 위해 준비해 온 모든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잇는 과정입니다. 학부시절 수강했던 법학 수업부터 회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까지 그 모든 점들은 자기소개서에서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운 좋게도 여러가지 법과 관련된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고, 이러한 점들이 로스쿨 진학에 도움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없다고 해서 로스쿨 진학을 앞두고 선불리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기보다는 여태껏 쌓아온 경험들은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자기소개서에 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간추렸습니다. 반드시 법학과 관련된 활동

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 글로 만드는 습관을 지속한다면, 입시에 적합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로스쿨에 먼저 진학한 선배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수차례의 피드백을 받은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자기소개서는 결국 저만의 이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합격수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이 합격했다면 합격한 자기소개서 또한 100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선배들의 피드백이 정답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그 피드백을 절대적으로 맹신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피드백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반복해서 읽고 퇴고하는 작업입니다. 수차례의 퇴고 끝에 만들어진 자기소개서와 단기간에 써내려간 자소서들의 논리와 깊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LEET가 끝나고 입학원서를 접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틈틈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읽으며 수정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 2. 면접

각 학교마다 면접방식 및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지원한 학교의 면접방식을 익히고 그에 맞추어 면접준비에 임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스테디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출면접질문을 분석하고 모의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자 예상 면접 주제를 찾아 이를 기반으로 즉석에서 모의면접을 진행함으로써 기초실력과 순발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다른 평가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면접에 있어서 스터디에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통해 실제 면접장에서도 떨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스터디에서 다루었던 주제가 면접에 그대로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접을 준비할 때에는 스터디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각자 자신만의 준비방법이 있겠지만, 면접은 여러 명의 면접관 앞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인만큼 스터디를 통해 훈련함으로써 적어도 긴장으로 인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IV. 하고싶은 말

정량적 요소이든 정성적 요소이든 모든 면에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욱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가 외적인 부분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직장생활과 로스쿨 입시 준비를 병행하였습니다. 잦은 야근으로 피로가 몰려와 집중하기 힘들 때도 있었고,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법조인이 되어야겠다고 했을 때, 마음 한 켠으로는 “내가 법조인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직업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조인을 향한 꿈이 더욱 확고해졌으며, 그 이후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물론 불안한 마음에 둘러싸여있을 수험생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실력을 가진 수만 명의 수험생들이 있지만 각자 개개인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다른 수험생들과 소위 말하는 스펙을 비교하며 안주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왜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나만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재정비함으로써 ‘멘탈’을 가다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다지 뛰어나지 않는 저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대학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된 입시 과정의 끝에서 합격의 문턱을 넘어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이상으로 수기를 마칩니다.